

수도권 소식

89.2.18

퇴폐이발소 여종업원 5% 매독

서울 강남구등 5곳 조사

17일 보사부는 지난 3일 보사부와 서울시 위생감시원 1백12명을 동원,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구 등 5개 구내의 1백50개 퇴폐이발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3백7명을 검진한 결과 5.2%인 16명이 매독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이들 가운데 77명을 부근 보건소로 데려가 검진한 결과 16.9%인 13명이 다른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당국이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특수업태부(매독 3.6%, 임균 등 5.9%) 접객부(매독 1.0%, 임균 등 3.6%) 위생분야 종사자(매독 0.6%, 임균 등 3.4%) 등의 8년 성병 감염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보사부는 퇴폐이발소 여종업

원들의 성병 감염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도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에 넣는 것을 검토중이다.

모범 위생업소 감세 혜택

서울시는 16일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모범이 용업소 및 대중음식점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과 부가가치세를 20% 깎아 주기로 했다. 시는 우선 시 자체적으로 요금 조정이 가능한 상하수도 요금부터 깎아주고, 국세청과 협의의 부가가치세도 할인해 줄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 보건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습 퇴폐업소 업주 명단을 적극 활용, 상습적인 퇴폐영업 업주들에게는 강력한 제형과 벌금형을 구형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